

광주시, 도로안전·풍수해·폭염 위험도 높다

본격 여름철 앞두고 22개 재난 안전분야 연구 용역 화재·미세먼지·지진도...안전계획 수립 체계적 관리

본격적인 여름철을 앞두고 광주지역 도로안전과 풍수해, 폭염 등의 위험도가 높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7일 광주시가 한국재난안전기술원에 의뢰 실시한 연구용역 결과를 보면 22개 재난안전 관련 분야 가운데 교통안전의 위험도가 가장 높았다. 100점 만점에서 85점으로 안전성이 매우 낮고 위험성이 높다는 평가를 받았다. 화재(84.5점), 풍

수해(83점), 폭염(82점)의 위험성도 매우 높은 수준이었다. 특히 시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미세먼지(82.5점)와 지진(81.5점) 등도 위험도가 높았다. 점수가 높을수록 위험도는 낮아지고, 안정성은 높아진다. 최근 5년간(2013~2017년) 광주지역 교통사고 발생 건수는 3만8907건으로 식중독 2만5473건, 화재 5005건과 비교해

월등히 많았다. 교통사고 사망자도 511명, 부상자는 6만2747명에 달했다. 강풍·태풍·호우 등 풍수해 피해는 6건이 발생해 500만원의 재산피해가 났다.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자는 288명(사망 3명·부상 285명)이었다. 코로나19 사태로 관심이 높아진 보건안전 분야는 52점으로 '보통' 평가를 받았다. 안정성이 높은 분야는 가족전염병(48점), 건설공사장(50점), 노후 민간건축물(51점), 보건안전(52점) 등이었다. 시는 용역 결과를 토대로 재난유형별 과

제를 선정하고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마련할 계획이다. 시는 안정성이 가장 취약한 교통안전을 위해서는 어린이·노인·장애인·임산부 등 교통 약자 이용 시설 개선, 보행자 중심의 도로 환경 개선,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확대 등의 대책을 마련 중이다. 또 풍수해·폭염 대책으로는 침수 취약 지역 정비, 풍수해 보험 가입 지원, 하천 제방 도로 안전시설 강화, 건강 돌보미 사업, 폭염 대피소 마련 등의 계획을 수립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포스트 코로나19 대응 토론회 광주전남연구원

광주전남연구원은 7일 "오는 9일 오전 광주전남연구원 8층 상생마루에서 연구원 주관, 광주시·전남도 후원으로 각계 전문가, 관계공무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포스트 코로나 19, 충격과 전환' 1회차 토론회를 갖는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전남대 의과대학 예방의학 신준호 교수가 '감염병시대, 지역 공공보건의료체제 어떻게 강화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기조발제를 맡고, 광주전남연구원 융복합산업연구실 오병기 박사, 박웅희 실장이 각각 '코로나19의 지역경제 영향과 대응 방향', '포스트 코로나 대응 광주·전남 지역산업 육성방안'을 주제로 지역사회의 의제를 제시한다. 이후 조창완 광주전남연구원 연구본부장의 사회로 나누몽 전남대 지역개발연구소장, 이동희 산업연구원 연구위원, 이준범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 과장, 이종하 조선대 교수가 토론자로 나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 지역의 경제, 산업정책 방향에 대해 토론을 실시한다. /유현석 기자 chadod@



"블루베리 떡 케이크 맛 있어" 5일 광주 북구 남도항도음식박물관 체험실에서 '가족과 함께 영양들뜰 요리교실'이 열렸다. 행사에 참가한 드림스타트 가족들이 친환경 재료를 이용해 직접 만든 블루베리 떡 케이크를 살펴보고 있다.

광주시,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시행

29일부터 157개 학교 보호구역 안전신문고 앱으로 신고 과태료

앞으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 불법 주정차 차량도 주민이 '안전신문고' 앱으로 신고하면 즉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광주시는 "오는 29일부터 관내 157개 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를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는 불법주정차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

고 어린이 교통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는 주민들이 요건에 맞춰 불법 주정차 차량을 신고하면 단속 공무원의 현장 확인 없이도 즉시 과태료(승용차 기준 8만원)를 부과할 수 있게 한 것으로 지난해 4월부터 시행됐다. 기존에는 ▲횡단보도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소 10m 이내 ▲소화전 주변 5m 이내 등 '4대 불법 주정차'가 주민신고 대상이었으나, 이번에 어린이보호구역이 추가됐다.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는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 사이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주 출입구부터 다른 교차로와 접하는 지점까지)에 불법 주정차 차량이 대량이다. 토요일과 일요일, 공휴일은 제외된다. 다만 어린이보호구역 안이라도 횡단보도나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등 '4대 불법 주정차'에 해당하는 구역은 기존과 동일하게 연중 24시간 주민신고제가 적용된다. 신고는 안전신문고 앱에서 불법 주정차 발생 위치와 유형 등을 선택한 뒤 차량번호와 위반지역을 식별할 수 있는 사진을 1분 간격으로 2장 촬영해 첨부하면 된다.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를 어린이보호구역으로 확대한 것은 이 구역에 세워진 차량이 운전자 시야를 가리면서 어린이 교통사고의 주원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는 주민 의견수렴을 위한 20일간의 행정예고와 지자체별 도로 정비 등을 거쳐 오는 29일부터 시행된다. 이후 한 달간은 계도기간으로 운영해 적발 시 주의에 해당하는 계도 조치를 하지만 8월3일부터는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과태료는 승용차 8만원, 승합차 9만원이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전남도, 금고 선정 시 무인점포·ATM 수 평가 신설

도의회 금고운영조례개정안 통과

전남도 금고 선정 시 무인점포·ATM (현금자동입출금기) 수 등을 평가하는 항목이 신설된다. 전남도의회는 7일 "전남도 금고 선정 기준을 조정해 '전남도 금고 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이 최근 소관 상임위원회인 기획행정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사순문(더불어민주당·장흥1)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조례안은 도 금고 선정 시 금고가 지역 경제 활성화와 주민 이용 편의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금고 지정 기준을 반영하고 타 시도 사례 등을 비교 검토해 전남도 형편에 맞게 평가항목을 조정했다.

특히 주민 이용 편의성을 고려해 관내 무인점포 수·ATM 설치 대수 등을 평가하기 위한 항목을 신설했다. 현행 조례는 관내 지정 수만 평가 항목으로 삼고 있다. 사순문 의원은 "협력사업비 과당경쟁을 완화해 고객 부담을 줄이고 중소기업에 행을 고려한 신용도 평가 방법 등을 개선했다"며 "이용이 편리하고 재정 상태가 건전한 금고를 선정해 지역경제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조례안은 오는 17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한편 전남도 제 1금고는 현재 NH농협은행이 맡아 일반회계와 지역개발기금을 관리 중이다. 제 2금고는 광주은행으로 6개 특별회계와 16개 기금을 관리한다. 약정 기간은 지난 2018년부터 연 말까지 3년이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광주서 또 이물질 섞인 수돗물

지난 5일 서구 아파트서 더위 속 570가구 불편

광주에서 또 수돗물에 이물질이 섞여 나오는 사고가 발생하면서 시민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 7일 광주시에 따르면 서구 한 아파트에서 지난 5일 오전 6시께부터 흙 등 이물질이 섞인 수돗물이 나온다는 신고가 이어졌다. 해당 아파트 570여 가구 주민들은 30도를 넘나드는 더운 날씨에 하루 종일

불편을 겪었다. 광주시 상수도사업본부는 인근 상수도 관련 공사가 늦어지면서 아파트 저수조로 이물질이 흘러 들어간 사실을 확인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측에 공사 지연 소식이 전해지지 않아서 미리 밸브를 차단하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상수도사업본부는 이 아파트의 수돗물 공급을 중단하고 생수나 급수차를 지원하는 한편 저수조 세척과 정비에 나섰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시티투어 타고 광주 역사·문화 즐겨요

'오월의 버스' 등 2개 테마형

광주의 역사와 문화를 버스를 타고 즐길 수 있는 시티버스가 본격 운행된다. 광주시는 5일부터 '오월의 버스'와 '100년의 버스' 등 2개 노선의 시티버스운행을 시작했다고 6일 밝혔다. 2개 노선의 시티버스는 광주의 주요 명소와 역사적 사건이 펼쳐진 장소를 투어하는 테마형 노선으로 운영된다. '오월의 버스'는 5·18의 흔적이 남아있는 장소를 중심으로 매주 금요일 오후 1시, 토요일 오전 9시 주 2회 유스퀘어(광주종합버스터미널)에서 출발한다. '100년의 버스'는 특별하게 디자인 된 버스를 타고 광주의 주요 명소를 둘러볼 수 있다. 특히 매력적인 가이드가 연기를 통해 광주의 역사를 소개한다. 매주 토요일 오후 1시 유스퀘어(광주종합버스터미널)에서 출발한다. 이어 13일부터는 ▲무등산 지질명소투

어 ▲전당권 문화관광투어 ▲빛고를 남도투어 등 3개 정규노선과 예약 노선인 ▲체험관광콘텐츠 투어 등 총 4개 노선의 순환형 버스가 운영된다. 무등산 지질명소 투어는 토요일 오후 9시 송정역을 출발해 화순전북, 호수생태원, 환백당 전통공원 등 지역의 자연과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코스로 구성됐다. 전당권 문화관광투어는 토요일 일출정역에서 오전 9시와 오후 2시에 출발하며, 양평동역사문화마을과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등 주요 관광지와 공연마루 공연 등 핵심 관광지를 만나볼 동안 둘러볼 수 있다. 빛고를 남도투어는 오전 9시에 광주역에서 출발해 송정역, 월봉서원, 함평자연생태공원, 영광 백제불교최초도래지를 거쳐 백수해안도로까지 둘러볼 수 있다. 광주시티투어 예약 및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www.gcitytou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최원일 기자 cki@kwangju.co.kr

2020년 여름 **정읍 내장산 초록단풍**

음이온 힐링콘서트

2020. 6. 13(토) 16:30
정읍 내장산 천하대장군 주차장 (매표소에서 내장사 방향 500m 부근)

조현조

장철연

추계연

신경영

양하영

박현진

열두달

이현희

- 코로나 19 대응**
 - 공연 관람시 마스크 착용 필수
 - 정보수집동의서 작성 및 발열체크로 공연시작 최소 30분전 도착
 - 관람시간 접촉은 최소화
- 입장객 안내사항**
 - 14시부터 공연 관람자 내장산 국립공원 무료 입장 가능
 - (구)내장산 관광호텔 부지내 주차장 무료이용(행사장까지 도보 10분)
 - 무료 관람(선착순 입장)
- 문의처** : 정읍시 성장전략실 (063)539-6881~2

| 후원 | 정읍시, 내장산국립공원사무소, 대한불교 조계종 내장사
| 주최 | 전주 MBC